

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
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2020.11.28

코로나19 팬데믹 건디기

고동우
(대구대학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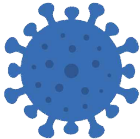
문제제기

-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

감염 위
험

생활 제
약

-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



코로나 19 팬데믹



문제제기 | Vulnerable or Tolerable?



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VS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
사람들

고려할 개인차 변인

: 공동체의식, 사회적 격리를 견딜 수 있는 능력(여가 동기와 능력)

1. 공동체 의식 | 왜 중요한가?

- 공중보건 (Public Health)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

[사례] (Takizawa et al., 2006)

- 공중보건(Public Health)의 차원에서 지역 유행병 수준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겪고 있던 일본 아오모리(Aomori) 지역 주민을 조사한 연구 (4,558명 대단위 표본)
- 중년의 위기를 겪는 남성들의 우울증이 사회적 지지 경험에 의해 완화된다는 결과.
- 특히 양방의 **호혜적 지지 경험이 클수록** 유의한 우울증 감퇴효과 있다는 결과.

- 사회적 지지 현상을 호혜적 개념의 하위 측면으로 이해하면 내용 범위 확장하여

→ 공동체심리학(Community Psychology: Sarason, 1974)의 핵심 구성개념

공동체 의식(sense of community)의 개념으로 묶어서 해석 가능

1. 공동체 의식

- ‘심리적 공동체의식(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)’ (Sarason, 1974)
 - “개인이 스스로 가용 가능한 상호 지원적인 관계망의 일부(mutually supportive network of relationship)임을 알면서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감각”(p.1)
 - ‘주고 받는(give and get)’ 호혜적 관계 지각이 중요, 이로부터 개인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.
 - 호혜적 상호의존성의 지각은 공동체 의식의 핵심 요소로 간주(박가나, 2008; 이종한, 1992; 장수지 등, 2014; Orford, 1992, ch.4.).
- ➡ 공동체의식의 긍정적 효과(stress 완충 및 삶의 질) 반복/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

1. 공동체 의식

- 공동체 의식의 하위개념 : McMillan & Chavis(1986)가 주장한 4개 요인
 - 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게 하는 소속감(MEM: Membership),
 - ② 구성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형성된 양방적인 상호 영향관계(INFL: Influence)
 - ③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얻는 통합감과 욕구 충족(IFN: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),
 - ④ 공동체 구성원 유대관계로부터 나온 정서적 친밀감의 공유(SEC: Shared Emotional Connection) 등.
- 공동체 의식 지수(SCI: Sense of Community Index) 개발 (Chavis, Hogge, McMillan, & Wandersman, 1986)
- 측정수준에서 4개 요인이 아니라 단일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(Buckner, 1988; Davidson & Cotter, 1986).
- Peterson, Speer, & McMillan(2008) :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, 단축형 단일차원이든 4개요인 측정이든 둘 다 타당하다는 결론. 내적/외적 타당도 확인.

1. 공동체 의식

- 2000년대 흐름 : 공동체의식 대신 친사회적 행동 연구 급증
 - 긍정심리학의 대두와 일맥((Martí-Vilar, Corell-García, & César Merino-Soto, 2019, p.368)
 - 친사회적 행동은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일 가능성
 - 다만, Nowell & Boyd(2010)에 따르면,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나 친사회적 경향성의 개념과 측정 방식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책임 내용이 간과된 경향이 있음.
- Nowell & Boyd(2010) :
 -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나 친사회적 경향성의 개념과 측정 – 공동체를 욕구 충족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심리적 복지(psychological well-being)에 편향됐다고 비판.
 - 자원중심이 아니라, 대안으로서 책임중심 공동체의식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.
 -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조.

1. 공동체 의식

결국, 전통적인 호혜적 신념 중심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있음

➡ 이 두 가지 개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하여 완충 효과를 가지는가?

2. 여가동기와 능력 | 여가제약과 타협전략
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인가?
- 코로나19 팬데믹이 **여가제약 요인**이 되는 이유
 - 직접적인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제한
 -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규범적 제한.
 - **자유시간의 활동 제약으로 전개 : 여가제약이자 생활제약**
- 제약 극복전략(coping strategies)으로서 타협전략(negotiation strategies) 작동
 - 인지적 수준에서 행동적 수준까지 분포
 - 다양한 타협전략(대체, 지연, 시간계획, 학습, 태도개선 등등)을 구사할 가능성은 개인의 능력과 동기에 의해 결정
 - White(2008): 여가동기와 타협효능감(negotiation efficacy)이 핵심
 - 결국, **여가동기와 자신감**이 여가(생활)제약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.

2. 여가동기와 능력 | 자기목적적 성격과 자기오락화 역량

- 여가동기와 능력을 아우르는 가장 오래된 개념으로서 자기목적성(autotelicity) (Aristoteles, ETHICS)
-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,
제약 상황에서도 즐겁고 의미있는 요소를 탐색하고,
제약의 대안을 더 쉽게 찾아내는 경향



‘자기목적적 성격(autotelic personality)’ (Csikszentmihalyi, 1990)

2. 여가동기와 능력 | 자기목적적 성격과 자기오락화 역량

자기목적적 성격 강함

- flow를 더 쉽게 경험
- 호기심이 많고, 덜 자기중심적
- 어떤 일이든 그 자체에 집중하고, 도전할만한 과제를 찾아서 몰두
- 경험의 즐거움 그 자체에 행위목표를 두는 내재적 동기 경향성
- 도전적이고 고급 기술의 일(advanced work)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

자기목적적 성격 약함

- 비구조화된 자유시간에조차 에너지 집중 능력 부족
- flow 진입 어려움
- 도전 상황을 회피
- 부정적 스트레스 경험이 많아짐



두 가지 개념 도출 : 내재적 여가동기성격, 자기오락화역량

2. 여가동기와 능력 | 자기목적적 성격과 자기오락화 역량

- **내재적 여가동기성격(intrinsic leisure motivation personality)**
 - 여가활동 참여 상황에서 쉽게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경향
 - 자기결정욕구, 유능감욕구, 깊은 관여, 도전 열망 등이 강한 반면, 권태감 지각 낮음
- **자기오락화 역량(SAE: self-as-entertainment capacity)**
 - '자유재량시간(free 또는 discretionary time)이 주어질 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적절한 여러 활동을 찾아내서 잘 수행하는 능력 또는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 수준' (Mannell, 1984; Kleiber et al., 2011, p.212).
 - 3가지 하위 요인 : **자기양식**(self mode, 자유시간 구조화 능력),
놀이화양식(mind-plat mode, 환상 및 상상 활용능력),
환경양식(environmental mode, 자유시간을 보낼 적절한 장소 찾기 능력) 등.
 -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할 자유시간의 제약에 타협적으로 대처하고,
이를 극복하게 하는 개인적 특질일 가능성 있음

두 가지 연구 결과

연구 1

고동우(2020). “코로나19의 제약을 견디는 사람들: 공동체의식,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”. 한국심리학회지:소비자·광고, 21(3), 399-424.

연구 2

자료분석 진행중

연구 1 | 고동우(2020.8)

- 조사기간
 - 2020년 3월 25일 ~ 4월 14일
- 대학생 표본 (302명)조사
 - 경산 204명, 천안 51명, 목포 47명
- 코로나 감염율의 편차 크기 고려
- 주요 변수 (5점척도)
 - 코로나19의 위협여부 1문항
 - 삶의 위험 지각 염려 1문항
 - 코로나 이후 생활의 제약-활발 정도 1문항
 - 공동체의식 단일요인 8문항 (Peterson 등, 2008)
 - 사회책임의식 단일요인 6문항 (Onwezen, 2013)
 - 자기오락화 역량 (Mannell, 1984)으로부터 2요인 15문항 선별
 - 자기 양식 요인 10문항 (자기요인 / 무기력요인)
 - 놀이화 요인 5문항

연구 1 | 결과 요약

- 약 3개월에 걸친 코로나 1차유행 시기에 사람들이 겪었을 긍정/부정 심리반응 유형
→ 반응빈도를 종속변수로 처리

- 부정적 심리반응

- ① 견디기 힘들었다 ② 짜증이 났다 ③ 불안했다 ④ 우울했다. ⑤ 가족들과 갈등이 생겼다 ⑥ 지루했다 ⑦ 두려웠다 ⑧ 슬펐다 ⑨ 화가 났다 ⑩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⑪ 한국인들에게 실망했다 ⑫기타()

- 긍정적 심리반응

- ① 편안했다 ② 놀이가 좋아졌다 ③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였다 ④ 색다른 경험이었다 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 ⑥ 사회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⑦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⑧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⑨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했다 ⑩ 디지털 기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⑪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⑫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웠다 ⑬기타()

연구 1 | 결과 요약

- 기술 통계 결과 (유의한 결과만 정리)

- 코로나19 위협 여부 : 남(3.25) < 여(3.86)
- 삶의 위협 여부 : 남(3.63) < 여(4.07)
- 생활 제약-활발 정도 : 남(1.75) > 여(1.47)
- 부정적 심리 반응 : 경산(2.89) > 목포(2.23), 천안(2.08)
- 긍정적 심리 반응: 성별, 학교별 유의한 차이 없음

연구 1 | 결과 요약

•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

표1-1. 심리적 반응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(n=302, stepwise)

예언변인	부정적 심리반응			긍정적 심리반응			
	β	t값	수정R ²	예언변인	β	t값	수정R ²
단계1				단계1			
제약/염려지각	.309	5.631***	.09***	책임상호작용	.248	4.441***	.06***
단계2							
제약/염려지각	.252	4.339***	.11***				
무기력상호작용	.164	2.824**					

*, p<.05, **, p<.01, ***, p<.001, β : 표준화 회귀계수

투입변인: [제약/염려지각, 사회적 책임의식, 공동체의식, 오락화:자기능력요인, 오락화:놀이화(상상력)요인, 오락화:무기력요인, 책임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사회적 책임의식), 공동체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공동체의식), 자기능력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자기능력), 놀이화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놀이화(상상력)), 무기력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무기력)]

표 1-2. 하위 표본별 심리반응빈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(n=302, stepwise)

연구 1 | 결과 요약

•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

변인 표본	부정적 심리반응(distress)				긍정적 심리반응(eustress)			
	단계	β	t값	수정 R ²	단계	β	t값	수정 R ²
남 (98)	단계1				유의한 해당변인 없음			.03n.s
	제약/염려지각	.290	2.969**	.08**				
	단계2							
	제약/염려지각	.480	3.838***	.116***				
	놀이화상호작용	-.294	-2.351**					
여 (204)	단계1				단계1 책임상호작용	.243	3.556***	.05***
	제약/염려지각	.302	4.505***	.09***				
	단계2							
	제약/염려지각	.244	3.480**	.11***				
	무기력상호작용	.180	2.576*					
대구 경북 (168)	단계1				단계1 사회적책임의식	.254	3.377**	.06**
	제약/염려지각	.396	5.552***	.15***				
	단계2							
	제약/염려지각	.340	4.509***	.17***				
	무기력상호작용	.159	2.115*					
기타 지역 (134)	단계1				단계1 책임상호작용	.269	3.212**	.07**
	무기력상호작용	.233	2.750**	.05**				

*, p<.05, **, p<.01, ***, p<.001, 투입변인: 표1와 동일

연구 1 | 소결론

-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기감 및 심리적 반응은 성차 있다 (여자가 남자보다 더 민감하다).
-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기감과 심리적 반응은 지역차가 있다.
- 코로나 팬데믹이 긍정/부정 심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절 효과를 가진다.
 - ① 부정적 심리반응 효과는 오락화 무기력이 클수록 증가한다.
 - ② 긍정적 심리반응 효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증가한다.
 - ③ 성차도 있다
 - 부정심리반응의 경우, 남자들은 놀이화 양식이 억제적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, 여자들은 오락화 무기력 요인이 촉진적 조절효과를 가진다
 - 긍정심리반응의 경우, 여자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촉진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반면, 남자들은 유의한 조절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.
 - ④ 대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이 클수록 전화위복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연구 2

- 표본: 전국단위 349명 (12~78세, 평균 31.4세),
 - 여 233명(59%), 남 161명 (41%)
- 측정 변수: 연구 1과 동일
- 추가 분석: 심리 반응(긍정/부정)의 폭 고려

연구 2 | 결과 요약

- 성차분석

- 코로나 제약수준 : 남(3.63) < 여(3.98), $t(348) = -4.72^{***}$
- 공동체의식 : 남(3.44) > 여(3.33), $t(348) = 1.94 \#$
- 사회책임의식, 오락화 역량 3요인, 삶의만족도 등 n.s.
- 긍정 반응수 : 남(2.04) < 여(2.45), $t(348) = -2.08^{**}$
- 부정반응수 : 남(1.99) < 여(3.06), $t(348) = -4.88^{***}$
- 심리반응폭 : 남(4.03) < 여(5.52), $t(348) = -4.78^{***}$



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하고,
취약하고, 더 적극적으로 타개책을 추구하는

경향

연구 2 | 결과 요약

- 위계적 다중회귀분석

- 투입 변인

[제약/염려지각, 사회적 책임의식, 공동체의식, 오락화:자기능력요인, 오락화:놀이화(상상력) 요인, 오락화:무기력요인, 책임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사회적 책임의식), 공동체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공동체의식), 자기능력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자기능력), 놀이화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놀이화(상상력)), 무기력상호작용(제약/염려지각 × 오락화:무기력)]

- 결과 변수: 긍정반응 수, 부정반응 수, 반응 폭

연구 2 | 결과 요약

-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(1)

- 긍정심리반응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의식 변수만 유의한 예언력 (약 6%)

표2-1. 긍정반응수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^a

모형		비표준화 계수		표준화 계수	t	유의확률	수정 R ²
		B	표준오차	베타			
1	(상수)	-.922	.633		-1.457	.146	.060***
	사회책임의식	.807	.157	.251	5.129	.000	

a. 종속변수: 긍정반응수

연구 2 | 결과 요약

•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(2)

- 부정심리반응에 대해서 코로나제약/염려수준, 오락화놀이요인, 오락화무기력요인이 정적으로 유의하고, 공동체상호작용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. → **공동체 의식의 억제적 조절효과 확인**

표2-2. 부정심리반응수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^a

모형		비표준화 계수		표준화 계수	t	유의확률	수정 R ²
		B	표준오차	베타			
1	(상수)	-.973	.562		-1.733	.084	.095
	코로나제약수준	.936	.144	.313	6.518	.000	
2	(상수)	-1.132	.551		-2.055	.041	.134
	코로나제약수준	1.681	.222	.561	7.560	.000	
	공동체상호작용	-.208	.048	-.321	-4.321	.000	
3	(상수)	-2.573	.740		-3.476	.001	.150
	코로나제약수준	1.759	.222	.587	7.926	.000	
	공동체상호작용	-.231	.048	-.356	-4.777	.000	
	오락화놀이	.429	.149	.136	2.880	.004	
4	(상수)	-3.351	.804		-4.168	.000	.161
	코로나제약수준	1.674	.223	.559	7.493	.000	
	공동체상호작용	-.208	.049	-.322	-4.258	.000	
	오락화놀이	.447	.148	.142	3.017	.003	
	오락화무기력	.302	.126	.113	2.402	.017	

a. 종속변수: 부정반응수

연구 2 | 결과 요약

•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(3) : 심리적 반응폭에 대한 예측 결과

- 오락화 놀이요인과 사회적 책임의식은 각각 코로나로 인한 심리반응의 폭을 유발하는데 촉진적 조절효과를 가진다. 공동체의식이 클수록 심리반응의 폭은 좁다.

표2-3. 심리반응 폭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^a

모형		비표준화 계수		표준화 계수	t	유의확률	수정 R ²
		B	표준오차	베타			
1	(상수)	1.759	.533		3.303	.001	.086
	오락화놀이상호작용	.244	.040	.297	6.161	.000	
2	(상수)	1.133	.612		1.852	.065	.093
	오락화놀이상호작용	.171	.053	.208	3.200	.001	
	책임상호작용	.103	.050	.133	2.053	.041	
3	(상수)	2.860	.977		2.926	.004	.103
	오락화놀이상호작용	.161	.053	.196	3.021	.003	
	책임상호작용	.136	.052	.177	2.628	.009	
	공동체의식	-.628	.278	-.114	-2.258	.024	

a. 종속변수: 반응폭

연구 2 | 소결론

-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경험과 반응 및 대처 방식이 **성별에 따라 다르다**.

여성이 대체적으로 더 민감하고, 취약하고, 동시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찾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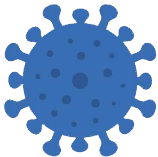
- **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**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. **긍정적 반응**을 더 많이 만드는 **촉진적 조절효과** 있다.
- **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** 코로나 19로 인한 **부정적 심리반응**에 **억제적 조절효과**를 가진다.
- **자기오락화 능력이 부족하다**고 지각할수록 **더 부정적 결과**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.



**공동체의식, 사회책임의식, 여가능력확장(leisure repertoire) 교육
필요**

결론: 이론적 모형 도출

(코로나19) 팬데믹



심리적 위기와
생활 (자유시간) 제약



개인차 변인

공동체의식,
사회책임의식,
자기오락화,
인구통계 등

심리적 반응
(긍정/부정)

인지/정서
대상(국가,사회,
개인, 상황, 이웃,
건강,규범, 종교,
바이러스, 환경,
생활요소 등등)



중장기적 결과

(삶의 질,
가치관, 생활양식,
여가활동, 소비활동,
사회적 행동 등의 변화)

참고문헌

- 고동우(2020). "코로나19의 제약을 건디는 사람들: 공동체의식,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". 한국심리학회지:소비자·광고, 21(3), 399-424.
- 박가나 (2008).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.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.
- 이종한 (1992).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- 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. 한국심리학회지: 사회및성격, 6(2), 76-93.
- 장수지, 김수영, Kobayasi, E. (2014). 연령집단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. 한국심리학회지: 사회 및 성격, 28(2), 1-24. <https://doi.org/10.21193/kjspp.2014.28.2.001>
- Buckner, C. J. (1988).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.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, 16(6), 771-791. <https://doi.org/10.1007/BF00930892>
- Chavis, D. M., Hogge, J. H., McMillan, D. W., & Wandersman, A. (1986).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's lens: A first look.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, 14(1), 24-40. [https://doi.org/10.1002/1520-6629\(198601\)14:1<24::AID-JCOP2290140104>3.0.CO;2-P](https://doi.org/10.1002/1520-6629(198601)14:1<24::AID-JCOP2290140104>3.0.CO;2-P)
- Csikszentmihalyi, M. (1990). Flow: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. New York, NY: Harper Perennial.
- Davidson, W. B., & Cotter, P. R. (1986).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.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, 16(7), 608-619. <https://doi.org/10.1111/j.1559-1816.1986.tb01162.x>
- Kleiber et al., 2011Kleiber, D. A., Walker, G. J., & Mannell, R. C. (2011).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(2nd Ed.). State College, PA: Venture Publishing.
- Mannell, R. C. (1984). Personality in Leisure Theory: The self-as- entertainment construct. Loisir et Societe/Society and Leisure, 7(1), 229-240. <https://doi.org/10.1080/07053436.1984.10715180>
- Marti-Vilar, M., Corell-García, L., & Merino-Soto, C. (2019). Systematic review of prosocial behavior measures. Revista de Psicología, 37(1), 349-377. <https://doi.org/10.18800/psico.201901.012>
- McMillan, D. W., & Chavis, D. M. (1986). Sense of Community: A definition and theory.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, 14(1), 6-23. [https://doi.org/10.1002/1520-6629\(198601\)14:1<6::AID-JCOP2290140103>3.0.CO;2-I](https://doi.org/10.1002/1520-6629(198601)14:1<6::AID-JCOP2290140103>3.0.CO;2-I)
- Nowell, B. & Boyd, N. (2010). Viewing Community as Responsibility as Well as Resource: Deconstructing the theoretical root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.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, 38, 828-841. <https://doi.org/10.1002/jcop.20398>
- Orford, J. (1992). Community psychology. John Wiley and Sons.
- Peterson, N. A., Speer, P. W., & McMillan, D. W. (2008).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: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.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, 36(1), 61-73. <https://doi.org/10.1002/jcop.20217>
- Sarason, S. B. (1974).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: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. San Francisco: Jossey-Bass.
- Takizawa, T., Kondo, T., Sakihara, S., Ariizumi, M., Watanabe, N., & Oyama, H. (2006). Stress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ge: Reciprocity and community mental health.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, 60(6), 652-661.
- White, D. D. (2008).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. Leisure Sciences, 30(4), 342-359.